



女行

여자 여행

Issue
No.3

빈티지 천국
예술의 거리
도쿄 편



빈 타 지 천 국 , 예 술 의 거 리
T O K Y O

3박 4일



1일차

시모키타자와



2일차

자유가오카



3일차

진보초



4일차

코엔지

1
일차



* 시모키타자와

한창 연말맞이로 분주한 12월의 어느 날,
거리엔 온통 크리스마스를 위한 준비로 가득한
겨울의 도쿄를 찾았다.

이번 여행은 룩폰기의 일루미네이션으로 반짝이는 거리,
시부야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을 뒤로 하고
그들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자 한다.

그 첫날은 시모키타자와에서 시작되었다.



| 혼다극장(本多劇場) | 지하철 오다큐(小田急) · 게이오 이노카시라(京王井の頭)선 시모키타자와(下北沢)역에서 도보 3분

本多劇場
혼다극장

도쿄 안에서도 시모키타자와는 문화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지역이다. 특별한 관광지가 있다기 보다 빈티지한 상점들 사이에서 유니크함을 장착한 멋쟁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 젊은이들을 가로질러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혼다극장을 중심으로 아주 오래된 소극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 시모키타자와가 왜 연극거리라고 불리는지 알아?
- 갑작스럽네 극장이 많아서?
- 그래, 정답!
- 너무 쉬운 거 아냐?
- 하지만 틀렸어, 시모키타자와가 연극거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거리 전체가 극장이기 때문이야
- 무슨 뜻이야?
- 시모키타에는 곳곳에 작은 무대가 있고 왕래하는 사람들은 다 등장인물인 거야. 거기서 모두 울고 웃고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극적인 거리니까 연극거리야

-드라마 〈시모키타자와 다이하드〉中-

* 시모키타자와 소극장 〈劇〉





모처럼 시모키타자와에 온 만큼 혼다극장 거리에서
연극 한편을 보려고 한다.

일본에는 여러 차례 온 적이 있고, 때때로 영화나 전시회를
보러 간 적은 있지만 연극은 처음이었다.

괜시리 긴장된다.

티켓창구가 오픈할 때까지 꽤 긴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매진된 금일표 중에서 다행히 한장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겨우 볼 수 있었다.

연극명은 [지옥(地獄)], 포스터도 제목도 뭔가 어두운 분위기여서
좀 무서운 내용이지 않을까 걱정하며 극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다행히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블랙코미디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연극이었다.

성공적이었어, 나의 첫 연극



시모키타자와 역에서 내리면
 눈 앞에는 수많은 빈티지 상점들이 줄지어 서있다.
 쉽게 지갑이 열리지는 않지만
 쉽게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되는 풍경들이다.
 빈티지 상점들 사이에는 팬케이크 가게나
 아이스크림 가게 등이 있다.
 아무래도 시모키타자와가 핫한 이유는
 이 모순된 거리가 어찌보면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적이게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꽤나 매력적이다.



이런저런 상점들을 둘러 보고
연극까지 보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다.
숙소로 돌아가려고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이 저녁에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바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말하는 바쁜 소리라 하면
평일 오전 11시쯤 을지로에 가면 들을 수 있을 법한
우와양~ 하며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라거나
철경! 하며 물건 따위를 내려 놓는다거나 하는
소리인데, 한적한 어느 골목에서 그 바쁜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동경신문>이라는
아주 작은 신문사가 있었다.
이곳이 신문사인지 신문을 찍어 내기만 하는
곳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바쁜 소리 앞을 지나는 그 순간,
왠지 내가 영화<심야식당>에 나오는
에피소드 많은 주인공들 중
한 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에휴, 집에 가자.

2 일차



* 지유가오카

도쿄의 작은 유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름처럼 예쁜 지유가오카.
이 곳에 처음 온 건 8년 전,
소품 상점이 많다고 하여 왔던 것을 계기로
어쩔 일인지 도쿄에 올 때마다 매번 방문하게 된다.
매번 방문해도 매번 예쁜 거리들이다.
반면, 골목길은 한적하고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지유가오카를 산책할 때에는 지유가오카 냄새가 날것 같은
음악을 플레이하며 걸으면 그 감동은 배가 된다

BGM은 Back Number의
僕の名前を(나의 이름을)



두 발자국.

코
소
앙
古
桑
庵

지유가오카에는 코소앙(古桑庵)이라는
일본 전통 가옥과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전통 찻집이 있다.
이 곳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가게를 들어가지 않고,
적어도 10분 이상 코소앙 마당에서 사진을 찍는다.

입구에서 정원을 지나 카페 내부로 들어 갈때까지...
뒤통가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어렸을 때 생일파티에 초대받아
친구집에 갔더니 친구가 이층집에 사는 부자였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

와... 너..이층집에 살아?





| 코소양(古桑庵) | 도큐도요코선(東急東横線) 자유가오카(自由が丘)역 >> 도보 5분



사람

여행을 가기로 했다. 당분간 우리집과는 안녕이다. 매일 아침 지긋지긋한 지하철과도 안녕이다. 매일 아침 7시반이면 신나게 울어대는 알람시계와도 안녕이다. 매일 저녁 퇴근길에 만나는 집 앞 편의점 알바생과도 안녕이다. 매일 점심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도 안녕이다.

마음 속으로 모두와 안녕을 한 뒤 떠나는 그 쾌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게 1박 2일이든 10박 20일이든 그 쾌감의 양은 같다.

그렇게 자유의 몸으로 떠난 여행에서, 결국 사람을 만나고 지하철을 타고 편의점에 가고 알람시계로 눈을 뜨게 된다. 또 언제나처럼 사람으로 받은 상처도 사람으로 위로받는다.

가끔은 강아지에게 위로 받기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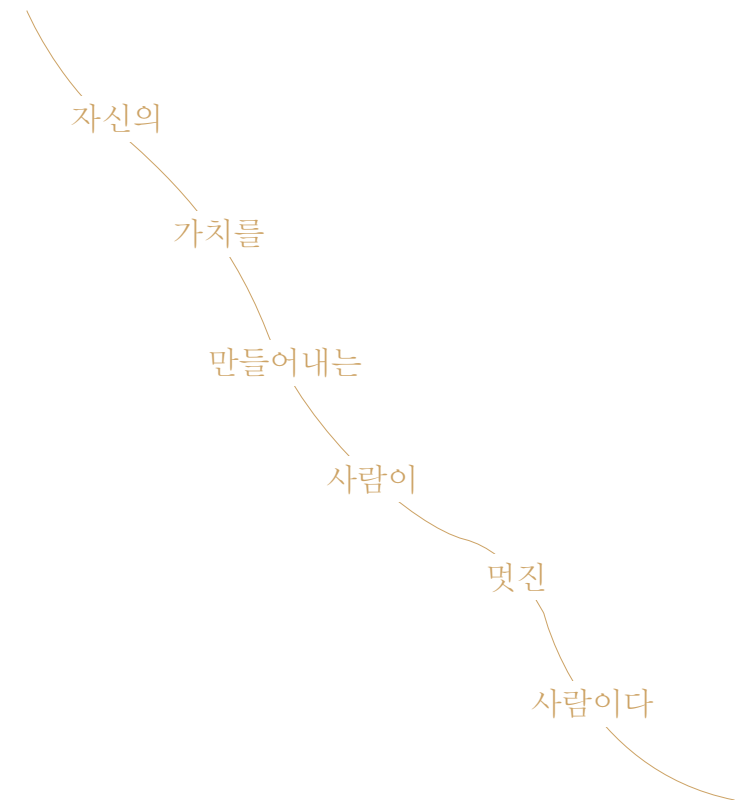


* 지유가오카 시(時)유(遊)관(館)

시
유
관
時
遊
館

시(時).유(遊).관(館)
 시간이 놀다 가는 곳이라는 뜻의 이 가게는,
 사실 가게가 흥미로웠다기 보다
 가게 이름이 마음에 들어 들어갔던 곳이었다.
 시간이 놀다가는 곳,
 나에게 있어 지유가오카가 그런 곳이다.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



〈영화〉 모리사키 서점의 나날들 中

3
일차



* 진보초 헌책방 거리

영화 <모리사키 서점의 나날들>.
우연히 보게 된 이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진보초.
영화의 주인공은 헌책방 2층 창가에 턱을 괴고 앉아서
사색을 즐기거나 고요한 헌책방 카운터에 앉아서
헌책에 가격을 매기거나 하는, 어찌보면 우리 현실과는
조금 다른 듯한 모습을 영화 내내 보여주고 있다.

일본 특유의 휴머니즘을 갈구하고 있는 스토리였지만,
여기서 보여준 진보초의 헌책방의 풍경만으로도
이 영화를 보기에는 충분하다.





가장 좋은 건
여기서 나는
이 푼 푼한 냄새

진보초
神保町

전 세계를 불문하고 비슷하다고 느끼는 점은
헌책방 주인들의 시크함이다.
들어오는 손님에게도 그다지 크게 기대따위는 하지 않는 듯한 표정과 말투
행여나 두 손 가득 사더라도 크게 감동하지 않는 듯한
그들의 행동은 자꾸만 헌책방에 가고 싶게 만든다.

책을 쓱쓱 훑어 보다가 사지 않고 나와도 부담스럽지 않고,
찾는 책이 있거나 하면 그 무심한 얼굴로 능숙하게 책을 찾아 주기도 한다.

매력적이야.



| 진보초 헌책방 거리 | 지하철 신주쿠선(新宿線), 미타선(三田線), 한조몬선(半蔵門線) >> 진보초(神保町駅) 역



진보초 거리를 걷다가 어느 음식점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이 동네의 중년 남성들은 모두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듯 했다.
고민할 이유가 없이,



오늘
점심은
여기에서

* 진보초 <키친 난카이>

4 일차



* 코엔지

조용하고 소박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동네.
코엔지역을 나와 남쪽으로 가면 동화같은 감성을 지닌
빈티지 샵들이 제각각 자신의 얼굴을 뽐내고 있다.
광장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소품들과 옷이지만
코엔지만의 귀여운 감성이 더해져 있다.

하라주쿠의 핑크핑크한 감성과 키치쵸지의 온화한 분위기가
힘을 합쳐 마을을 꾸미고 있는 듯한 곳.



クラッシュ **ブリス**

OPEN 12:00
CLOSE 20:00
(月曜 19:00)

定休日 水曜日





| 커피하우스 포엠(Coffee House Poem) | Coffee House poem, 1 Chome-8-5 Haramachi, 目黒区 Tokyo 152-0011

커피하우스 포엠(Coffee House Poem)

카페에 들어섰을때 두 남 녀가 반갑게 맞아 주었고
가게안은 커피향으로 가득했다.

어딘가 오래된 듯한 테이블과 뽀뽀뽀뽀 담배를 태우며 커피를 마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모두가 단골인듯 가게를 들어서며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인상적이였다.

오늘의 외지인은 나뿐이었던것 같은 이 분위기.
반드시 또 가고 싶은 이유



喫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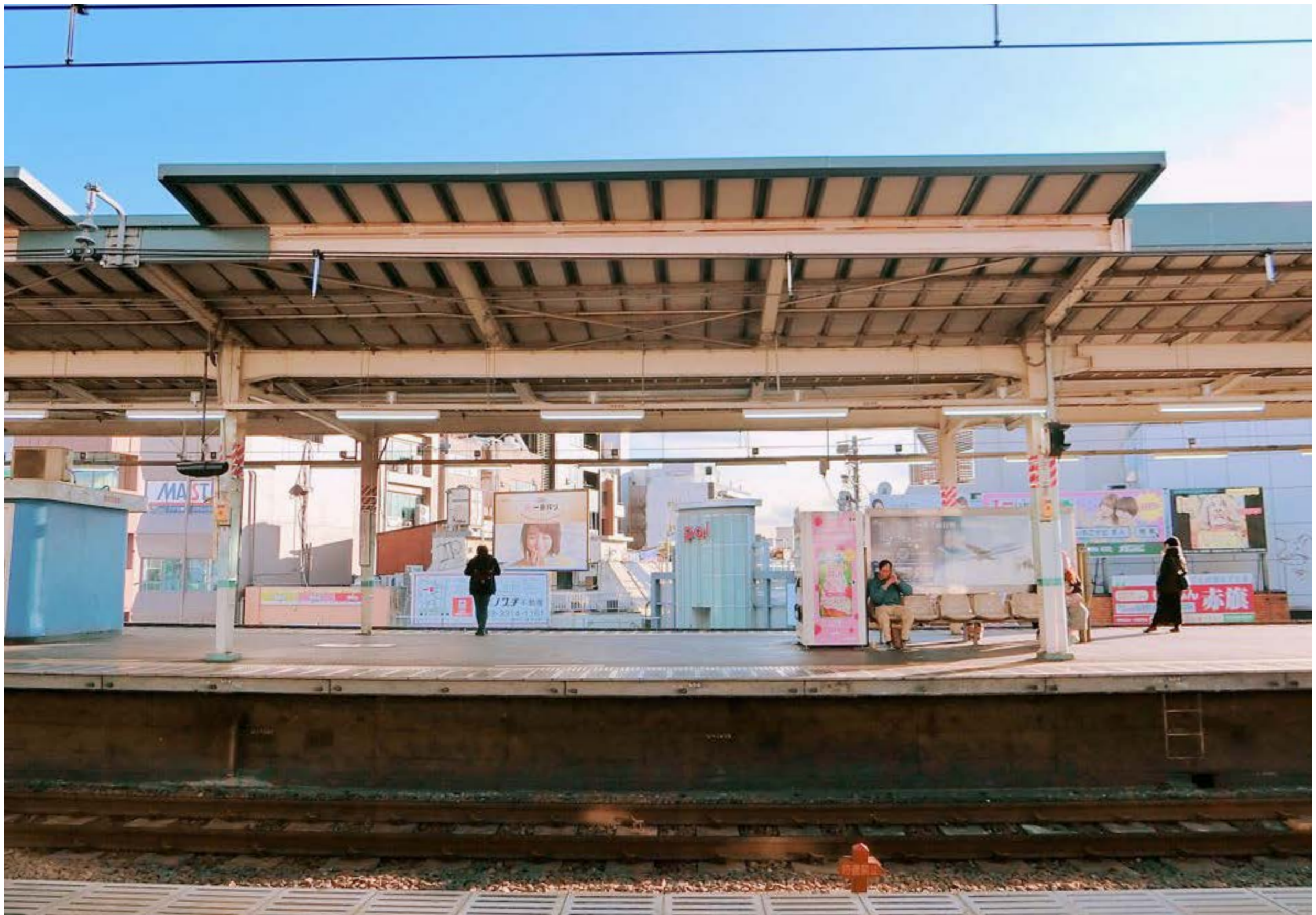


은희경의 산문집 <생각의 일요일>이란 책에
이런 글귀가 써있다.

‘우리 모두의 안에는
늘 마이너리티가
들어 있어요’

이곳과 딱 어울리는 말이다.





BEHIND

비하인드

Behind.1

여행에 가면 늘 맛있는게 먹고 싶다. 가능하다면 이 동네에서 가장 최고의 맛집에서 먹고 싶다. 지유가오카에 갔던 날, 배도 고프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어디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우리의 첫끼를 망칠 수 없었기에 돌아다니던 중 어딘가 엔틱한 분위기를 마구마구 품어내는 가게를 찾았다. 야키카레와 수플레를 주문했고 음식이 나와 첫 입을 떼 순간, 방금 전까지 지유가오카의 아름다웠던 풍경들과 예쁜 소품들에 반했던 감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것들을 모두 뛰어넘는 맛이다.아무래도 다음 여행엔 또 지유가오카에 가게 될 것 같다.



[별의 커피점(星乃珈琲店)]

Behind.2

12월엔 도쿄에 가라고 했던가. 겨울만 되면 온통 일루미네이션으로 거리를 장식하는 도쿄. 나는 그 중에서도 롯폰기의 일루미네이션 거리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유는 말할 필요없이 도쿄타워 때문이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 그 이상 가치있는 일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영화 도쿄타워의 대사이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여행 기간 중에 유일하게 해가 지기만 기다리게 될 때는 도쿄타워를 보러 가는 날인 것 같다.



[롯데몰 모리타워 일루미네이션 거리]

Behind.3

후지산은 일본인들에게 '미료쿠노야마'라고 불리운다. 해석하자면 <매력의 산>이라는 뜻인데 미료쿠(魅力(매력))적인 산이 아니라 미료쿠(見力)라는 의미로 '보면 힘이 나는 산'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일본인들에게 후지산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산인 것이다. 나는 언젠가 이 산을 꼭 한번 보고 싶었고 아마나시현의 카와구치호라는 곳에서 보게 되었다. 나홀로 우뚝 서서 가장 동양적인 모습을 하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습에서 괜시리 이 순간 만큼은 이 산에 기대고 싶어졌다. 그날의 후지산 역시 미료쿠(見力)의 산 다웠다.



[카와구치 호에서 바라 본 후지산]

Behind.4

때 마침 롯폰기에 있는 국립신미술관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타다오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너의 이름은>의 신카이마코토전이 열리고 있었다. 평소 <언어의 정원>, <초속5센티미터>, <너의이름은>등 신카이마코토 작가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전시장을 찾았다. 주말이라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너를 지키며 아주 조용하게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전시는 기대보다 훨씬 더 좋았고, 우리나라에서도 7월에 전시가 열린다고 하니 한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롯데몰 국립신미술관 / 신카이마코토展]